

#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Adjustment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박영애 · 김경은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Park, Young Yae · Kim, Kyoung-eun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adjustment among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0 children between fifth and sixth grade ages and 579 middle school students. Their emotional competence was assessed by 'Korean Emotional Competence Scale (Kim et al., 2004),' and also their social adjustment by 'Social Adjustment Scale (Lee, 1994).' The data were analyzed by ANOVA, the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using SP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hildren's and adolescents'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adjustment had a meaningful difference according to SES, gender, and grade. (2)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ir emotional competence and social adjustment. Their social adjustment was related more strongly to factors, such as Self-expressiveness, Assertion, and Positive thinking, and also their emotional competence more to Self-adjustment and Emotional adjustment. (4) Social adjust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predicted best by Self-expressiveness and Assertion, Positive Think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Consideration factors of emotional competence.

Key Words : Korean Emotional Competence, Social Adjustment.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서 인간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급속한 신체적·정신적 성장으로 인한 많은 심리적 갈등과 적응적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에 아동 및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한 문화에 적응하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개념을 발달시키게 된다.

적응이란 개체의 욕구와 사회 환경의 상황간의 조화를 표현하는 개념(Belsky, Lerner, & Spnauer, 1984)으로 개인의 욕구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Lazarus는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행동과정으로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 하였고, Allport는 적응이란 환경에 대한 자발적이며 창조적인 행동이며 그 필수 조건으로 행동의 결과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하였다(김경은, 1997, 재인용).

심리적 측면에서 적응이란 개체의 욕구해소 과정으로 이것은 객관적 사회면에서의 외적 적응과 주관적 자아측면에서의 내적적응으로 분류된다. 외적적응은 개인이 환경의 사회 문화적 규범에 근거를 두고 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타인과 협동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내적적응은 자기 자신의 가치 기준이나 요구 수준에 건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Kim, Kyoung-eun

Tel: 02) 391-2111, Fax: 02) 396-8843

E-mail: leejay48@chol.net

주어 자신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자기 충족감, 자존감, 행복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응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자기 스스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모든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반면(Belsky, Lerner, & Spnaier, 1984), 부적응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대인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역기능적으로 대처하게 된다(권영민, 1995).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경제 및 문화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 아동이 지닌 인지능력(권영민, 1995; Luster, 1990), 긍정적 자아개념(Rutter, 1987; Luster, 1990), 정서능력(Saarni, 1990)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성격과 지적 수준, 가치관과 정서상태(박소혜, 1995)와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지지(Dubow, & Tisak, 1989)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 및 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Conger et al., 1992), 교사와 또래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Dubow, & Tisak, 1989).

한편, 정서는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특정 상황에서 대인 관계를 시작하고 수정하고 유지하거나 종결짓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Campos, Mumme, Kermoian, & Camps, 1994). 정서적유능성은 정서를 유발하는 사회적 교류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나 목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조절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정서적 교류 상황에서 자아효능감을 나타내는 것이다(Saarni, 1999). 정서적유능성이란 특정 정서가 포함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기 위해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능하게 자신의 정서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즉, 사회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가치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정서 지식을 이용하여 정서 경험을 조절하거나 대인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Saarni(1999)에 따르면 정서적유능성은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정서어휘, 감정이입, 정서표현, 정서적 의사소통, 정서적 자아효능감의 8요인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이나 대인관계 기술을 요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숙한 정서적유능성은 청소년기가 되어야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적유능성은 개인의 자아(혹은 자아정체감), 도덕적 성향, 발달사(경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Saarni, 1999). 개인의 정서적 경험을 자아가 어떻게 관여하느냐에 따라 정서적유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성숙한 정서적유능성이란 인격적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때 인격적 완성은 자신의 도덕관 혹은 도덕적 성향과 일치되

어 살아온 삶을 의미하므로 정서적유능성은 도덕적인 성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유능성이란 개인의 인지발달 기능 및 그의 경험 속에서 정서적 경험을 능동적으로 창조해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발달사(경험)는 개인의 정서적유능성과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은 개인의 정서적유능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한국사회는 서구 사회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정서문화를 가진다. 한 예로 전통적인 유교문화에서는 개인의 정서를 외부로 드러나게 표현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한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미덕을 여겨왔고(우남희, 1999), '우리'의식, 집단적 정체감, 정서적 의존성, 집단 유대성, 의무와 책임의 공유, 집단의사결정 등을 강조하며(Hofstede, 1980), 겸양의 미덕을 갖추어 남과 조화를 이루며 대인관계에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사회를 조화롭게 하는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본다(이수원, 1996; 조공호, 1999).

또한, 한국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적 정서적유능성에 대한 개념을 상정해본 결과 정서인지·이해, 긍정적수용감, 공동체의식, 정서표현적정성, 자기표현·주장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김경은, 김리진, 박영애, 김주후, 2004). 한국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유능한 아동 및 청소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며,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여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도 너무 자제하지도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표현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높고, 정서적 상호작용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서적유능성은 유아기에는 아주 초보적인 형태, 예를 들면 동정심, 자제력이나 순종심, 그리고 나눔 활동에서의 공평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의무감이나 양심 등의 발달과 함께 보다 더 성숙해지게 되고,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완전한 틀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유능성은 건강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며(Saarni, 1990, 1999), 또래 간 인기도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arke, 1994, Saarni, 1990). 뿐만 아니라 어린 시기에 정서적유능성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하면 인생 전반에 걸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Denham, 2001).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갖는 정서적인 안정감 및 정

서적인 능력은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 사건에 직면했을 때 행동장애나 비행 등의 부적응행동의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령기 아동들이 부모나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갈등을 느끼게 되면 학업부진이나 비행, 성격상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박소혜, 1995).

그리고 정서적으로 유능한 아동들은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부딪혔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처능력을 보이며(Saarni, 1997), 자신의 정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능숙하게 타인과의 관계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Pelligrini(1985)는 타인과 사회적 상황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적응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강조하였고, 대인이해능력은 사회적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정서 표현 및 정서조절(Eisenberg et al., 1993), 정서지식이나 정서 이해(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Garner et al., 2001), 감정어입능력 등의 정서능력이 친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또한 정서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신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자신에게 중요한 목적을 추구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다(Harter, 1999).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불안정한 환경에 처해있을 때, 아동에게 자신감, 통제,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Luster, 1990), 과도하게 비판적이거나 불만, 걱정, 불안을 지나치게 표현하는 경우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차지연,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정서적유능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밝히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한국적인 정서 능력이 사회적 적응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한국적 정서적유능성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은 차이를 보이는가?
3.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간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4. 정서적유능성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 3개교의 5, 6학년 학생 400명과 중학교 3개교의 1, 2, 3학년 학생 600명으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한 100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6부를 제외하고 964부를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내용	빈도(%)
성별	남	486(50.4)
	여	478(49.5)
학년	초등5학년	102(10.6)
	초등6학년	278(28.8)
	중등1학년	190(19.7)
	중등2학년	185(19.2)
	중등3학년	204(21.2)
	결측값	5(0.5)
생활수준	상	129(13.4)
	중	785(81.4)
	하	40(4.1)
	결측값	10(1.0)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동이 평정하는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 검사이다.

#### 1) 정서적유능성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은, 김리진, 박영애, 김주후(2004)가 개발한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27문항으로 1점에서 4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 하위요인으로 '정서인지·이해(정서를 포함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거나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10문항, '긍정적수용감(정서적으로 견디기 힘든 여러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능력)' 4문항, '공동체의식(집단 생활에서 개인의 안락함보다는 집단의 공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능력)' 3문항, '정서표현적정성(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 4문항, '배려성(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여 배려할 수 있는 능력)' 4문항, '자기표현·주장(정서적 상호작용시 소심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 2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39.80%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반분신뢰도는 .71이고, 전체 Cronbach's  $\alpha$  값은 .68이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정서인지·이해'는 .69, '긍정적수용감'은 .61, '공동체의식'은 .61, '정서표현적정성'은 .45, '배려성'은 .46, '자기표현·주장'은 .32이다.

## 2) 사회적 적응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이수자(1994)가 작성한 '사회적 적응'척도를 수정·보완하고 재명명하여 사용하였다. 윤서영, 정옥분(1999)은 이수자 척도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대응성', '적응성'의 4가지 요인을 '가족적응(가족 내에서의 원만한 관계 형성과 가족 내에서의 적응)', '대인적응(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맺는 원만한 관계와 집단 생활에서의 적응)', '자아적응(개인이 내적으로 갖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정서적응(개인이 심리적으로 갖는 안정성)'으로 재명명하였다. 이 척도는 4가지 하위요인에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하위요인별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리커트 2점 척도로 예, 아니오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적응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alpha$  는 .81이고 하위요인별 Cronbach's  $\alpha$  값은 가족적응은 .80, 대인적응은 .82, 자아적응은 .82, 정서적응은 .78이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2004년 4월에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문항 내용 및 어휘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하

고, 문항내용 전달이 어려운 문항들은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400명과 중학교 1, 2, 3학년 6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들이 담임선생님께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교실에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담임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회수된 1000부의 질문지 중 부실한 응답을 한 36부를 제외한 964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과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é의 다중비교검증을 하였다. 한국적 정서적유능성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하위요인중에서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잘 예측해줄 수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아동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의 전반적인 경향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정서적유능성은 '정서인지·이해', '긍정적수용감', '공동체의식', '정서표현적정성', '배려성'의 하위영역에서는 고르게 2.5이상의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서인지·이해'가 가장 높게 나왔고, '자기표현·주장'은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정서적 교류 상황에서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비교적 높은 반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능력은 낮음을 의미한다. '배려성'은 비교적 높으나 '공동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주목해 볼 부분이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은 '가족적응',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의 하위영역에서 .43-.49의 중간수준의 평균을 나타냈는데,

<표 2>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의 전반적인 경향

	평균	표준편차
정서인지·이해	2.92	.38
긍정적수용감	2.73	.67
공동체의식	2.45	.55
정서표현 적정성	2.52	.31
배려성	2.82	.52
자기표현·주장	1.90	.64
정서적유능성 총점	2.65	.23

<표 3>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의 전반적인 경향

	평균	표준편차
가족적응	.46	.17
대인적응	.49	.16
자아적응	.47	.17
정서적응	.43	.19
사회적 적응 총점	.46	.13

그 중에서 '대인적응'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응'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가족외의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집단생활에서 적응하는 능력에 비해 다양한 상황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유능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 유능성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정서적 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배려성'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로는, 정서적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정서인지·이해', '자기표현·주장'과 '배려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인지·이해'능력은 대체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 5학년과 중 2, 3학년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표현·주장'능력은 대체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 5학년과 중 2, 3학년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년이 낮을수록 정서적 교류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인지·이해 능력은 증가하는 반면, 자기주장·표현능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배려성은 초등 5학년과 중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정서적유능성 총점과 하위 요인 중 특히, '정서인지·이해'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고, 또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서적유능성

변수	구분	정서인지·이해		긍정적수용감		공동체의식		정서표현 적정성		배려성		자기표현·주장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	2.92	.39	2.76	.73	2.48	.63	2.53	.32	2.77	.52	1.93	.65	2.64	.24
	여	2.91	.37	2.70	.62	2.42	.45	2.51	.30	2.87	.51	1.88	.63	2.65	.23
	F	.468		1.506		1.633		.784		-3.094***		1.168		-.582	
학년	초등5	2.83a	.41	2.70	.66	2.44	.44	2.51	.36	2.78ab	.54	2.10b	.65	2.63	.24
	초등6	2.87ab	.37	2.74	.62	2.49	.41	2.50	.33	2.88b	.53	1.95ab	.65	2.64	.24
	중등1	2.93ab	.39	2.73	.70	2.48	.85	2.56	.30	2.84ab	.49	1.94ab	.67	2.66	.25
	중등2	2.98b	.39	2.75	.81	2.43	.45	2.52	.28	2.82ab	.50	1.87a	.63	2.67	.23
	중등3	2.96b	.37	2.72	.60	2.39	.48	2.51	.31	2.74a	.53	1.74a	.58	2.62	.21
	F	4.253**		.124		1.123		1.108		2.561*		6.425***		1.096	
생활 수준	상	3.00b	.38	2.87	.65	2.51	1.00	2.54	.32	2.81	.58	1.95	.65	2.70b	.21
	중	2.91ab	.37	2.72	.67	2.44	.43	2.51	.31	2.83	.51	1.90	.64	2.64ab	.23
	하	2.80a	.57	2.65	.82	2.32	.53	2.57	.40	2.78	.48	1.84	.74	2.57a	.34
	F	4.583*		3.003		1.982		.782		.192		.586		4.806**	

\*p < .05    \*\*p < .01    \*\*\*p < .001

한 전반적인 정서적유능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는 사회적 적응 총점과 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 중 '자아적응'과 '정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여아에 비해 남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포함하는 자아적응력이 높고, 다양한 상황에 대해 내적인 안정감을 갖는 정서적응력이 높으며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사회적 적응 총점과 더불어 하위변인 중 '가족적응'과 '자아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족에 대한 적응능력과 자아적응 모두 초

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적응력은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고, 자아적응 능력은 특히 6학년 아동들에 비해 중학교 3학년생들이 높게 나왔다.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 역시 학년 증가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사회적 적응 하위 요인 중 특히, '정서적응'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생활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들이 내적인 심리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정서적응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정서적유능성 총점과 사회적 적응 총점 간에는 매우 유의하면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r=.341^{***}$ ). 이는 일반적으로 정서적유능성이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적응

변수	구분	가족적응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		사회적적응	
		M	SD	M	SD	M	SD	M	SD	M	SD
성별	남	.47	.17	.49	.17	.50	.17	.45	.19	.47	.13
	여	.45	.17	.49	.15	.45	.16	.42	.19	.45	.12
	F	1.864		-.690		4.322***		2.003*		2.268*	
학년	초등5	.42a	.15	.49	.17	.45ab	.16	.44	.17	.45ab	.12
	초등6	.42a	.15	.48	.15	.44a	.16	.42	.20	.44a	.12
	중등1	.48b	.17	.50	.15	.47ab	.16	.43	.18	.47ab	.12
	중등2	.48b	.17	.48	.15	.50ab	.16	.44	.18	.48ab	.13
	중등3	.49b	.18	.50	.18	.50b	.19	.45	.20	.49b	.14
	F	9.473***		.991		5.270***		.943		4.605*	
생활수준	상	.49	.18	.47	.16	.51	.17	.49a	.17	.49	.13
	중	.46	.17	.49	.16	.47	.16	.44ab	.19	.47	.13
	하	.45	.18	.48	.15	.49	.17	.40b	.17	.45	.13
	F	.860		.982		.875		3.589*		1.765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간의 상관관계

	정서인지이해	긍정적 수용감	공동체의식	정서표현 적정성	배려성 <sup>1)</sup>	자기표현·주장 <sup>2)</sup>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가족적응	.072*	.216***	.079*	-.010	.127***	.143***	.196***
대인적응	.191***	.193***	-.032	.046	-.095**	.221***	.211***
자아적응	.140***	.193***	.151***	.071*	.194***	.212***	.310***
정서적응	.162***	.227***	.063	.043	.084**	.261***	.282***
사회적 적응	.207***	.280***	.092***	.046	.094**	.289***	.341***

\* $p < .05$  \*\* $p < .01$  \*\*\* $p < .001$

1) 배려성'요인의 문항들은 모두 배려성부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정서적유능성의 전체점수 합산을 위해 역코딩하였다.

2) '자기표현·주장'요인은 위축, 억제성향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정서적유능성의 전체점수 합산을 위해 역코딩하였다.

높은 아동들일수록 사회적 적응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적응 총점은 정서적유능성의 하위요인들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자기표현·주장'(r=.289\*\*\*), '긍정적수용감'(r=.280\*\*\*), '정서인지·이해'(r=.207\*\*\*) 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정서적 상호작용에서 위축되지 않으며, 자신에게 닥친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사회적 적응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를 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족적응'과 뚜렷이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긍정적 사고'이고, '대인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자기표현·주장', '긍정적 사고', '정서인지·이해'였으며, '자아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자기표현·주장', '배려성', '긍정적 사고' 등이고, '정서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자기표현·주장'과 '긍정적수용감'였다. 이는 가족 내에서 긍정적 사고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가족적응은 높아짐을 의미하고, 또한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필요에 따라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아동이 대인관계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적응'은 유일하게 정서적유능성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요인으로, 어떠한 사회적 적응 요인들보다 '자아적응'이 정서적유능성의 고른 발달과 관련이 있는, 또는 그러한 고른 발달을 필요로 하는 적응요인일 수 있음을 짐작해보게 한다. '정서적응'은 특히 '자기표현·주장' 및 '긍정적수용감'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에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 결과를 정서적유능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표현·주장', '긍정적수용감', '정서인지·이해 능력', 및 '배려성'은 사회적 적응의 네 하위요인인 '가족적응', '대인적응', '자아적응', '정서적응'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자기표현·주장' 및 '긍정적 사고'는 보다 높은 상관관계들을 보여, 이들이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보다 중요한 정서능력 요인들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배려성'이 대인적응과 부적 상관(r=-.095\*\*)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자아적응' 및 '가족적응'과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정서표현적정성'은 '자아적응'과만 낮으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유능성 총점은 사회적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적응' (r=.310\*\*\*)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5. 정서적유능성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서적유능성은 사회적 적응능력을 17.5% 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유능성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적응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요인은 '자기표현·주장'으로 사회적 적응의 8.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수용감'는 6.9%, '정서인지·이해'는 2%를 설명하였다.

<표 7>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전체와 정서적유능성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사회적 적응		
	b	β	ΔR <sup>2</sup>
자기표현·주장	3.612	.294***	.082
긍정적수용감	2.463	.214***	.069
정서인지·이해	3.161	.154***	.020
배려성	1.084	.071*	.004
R <sup>2</sup>		.179	
수정된 R <sup>2</sup>		.175	
F값		44.244***	

\*p < .05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 간략히 논의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 평균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정서의 인지·사고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정서인지·이해' 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다 기질적인 요인에의 의존도가 높은 '자기표현·주장'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기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에 가까운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기주장·표현'능력이 다른 정서능력들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것은 문화와 양육의 영향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의 전통 유교문화에서는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기보다는 최대한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던(우남희, 1999) 만큼, 아직은 은연중에 이러한 덕목을 중시하는 부모의 양육 하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항상 조심스럽게 살피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주장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행동을 억제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될 수가 있

다. Chen 등(1998)이 같은 유교 문화권에 있는 중국 아동들이 서구의 아동들에 비해 위축되거나 행동억제 경향을 더 높게 보인다고 지적한 부분은 위의 결과와 상통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아동 및 청소년들의 낮은 자기주장성과 부족한 자기표현력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주장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적응행동을 포함하는 대인적응 점수가 가장 높고 개인이 보이는 정서적응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서적유능성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효과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배려성'이 높게 나온 것은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공감이나 감정이입능력이 높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도움이나 양보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Hoffman, 1984)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예견되었던 바와 일치한다.

그리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정서적유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정서인지·이해'능력이 커지는 것은, 정서적유능성이 유아기에는 초보적인 형태로 나타나다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성숙해지고,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완전한 틀을 갖추게 된다는 Saarni(1990)의 주장을 입증해 주는 한편, 성숙한 정서적유능성은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과 대인관계기술을 포함한다(Saarni, 1999)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반면, 학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자기표현·주장'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능력은 문화와 양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으로, 청소년들이 아동들에 비해 사회화의 기간이 좀 더 길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과도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단계로 단기적이지만 심한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에(정옥분, 1998) 대인간 관계에서 소심해하거나 불안을 느끼고 위축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

아동이 속한 가정의 생활수준이 아동의 정서적유능성 가운데서도 특히 '정서인지·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동의 정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특히 가정환경은 아동이 출생시부터 작용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 변인 중 하나이고, 그 가정환경 변인의 중추에 해당하는 부모는 아동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화 환경으로서 아동에게 정서표현 모델 및 강화자의 역할을 한다(Cole, 1986). 이러한 가운데서 아동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정서표현과 정서조절, 타인의 정서에 대한 반응양식을 학습하게 된다(Eigenberg, Fabes, Carlo, & Karbon, 1992)는 것인데, 생활이 어려울수록 가족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민감하고 반응적인 정

서 교류의 경험이 결핍되기 쉽고, 생활의 불안정과 가정 내 스트레스와 긴장, 좌절, 방임 등이 증가하기 쉬운 관계로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생활수준과 정서인지·이해능력에 관한 위의 결과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소득 저하, 직업 불안정, 부모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 증가, 양육에 악영향, 자녀의 정서발달 저해로 연결된다는 주장(Conger et al., 1992; Davis & Cummings, 1998)들과 상통한다.

셋째,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력이 높고 특히 자아적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들의 자아존중감이 여아에 비해 높음을 발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한편, 사회적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남아들이 여아들에 비해 많이 보이는 단순함과 대범함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능력과 더불어 가족적응력과 자아적응력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집단이 다른 어느 학년보다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능력과 자아적응력이 낮게 나온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사춘기의 개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춘기의 시작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불안이 앞서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의 생활수준이 사회적 적응 가운데서도 특히 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이 인지 및 행동수행 능력이 낮고(Luster, 1990),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친다(Laosa, 1981)는 연구 결과들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욕구를 민감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와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고자 할 때 아동을 다루는 방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Luster, 1990) 볼 수 있다.

넷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서적유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력도 높았다. 특히,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 주어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정서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능력은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력과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 표현 및 정서조절(Eisenberg et al., 1993), 정서지식이나 정서 이해(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Garner et al., 1994), 감정이입능력(Hoffman, 1984)등의 정서능력이



친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배려성’과 ‘대인적용’이 상호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집단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적응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추후 연구가 따라야 하겠지만, 배려성을 측정된 문항에서 부분적으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배려성’의 문항들은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지적하거나, 핀잔주거나, 화풀이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의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수록 배려성이 높은 것으로 채점되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들은 본질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표현’이라는 차원과 일부 중첩되는 면이 있고, 따라서 배려성이 높다는 것이 자신의 반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수준이 낮음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어서 대인적용과 부적 상관을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행동억제 또는 행동자제 성향이 지니는 역기능적 속성은 앞서(표6 참조) ‘대인적용’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정서적유능성 요인이 ‘자기주장·표현’ 요인이었다는 발견과도 상통하고 있어 이해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있어 아직도 표현(정서적 표현)의 문제와 적응(사회적 적응)의 문제가 어느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표현 수준 또는 표현 능력이 아직은 더 신장되어야 하는 그런 수준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표현이 너무 넘쳐서 더 높아진다는 것이 사회적 적응을 해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직은 더 장려되고 발달될 여지와 필요가 있는 그런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논의를 자연스럽게 다음 논점으로 이어간다.

다섯째,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 가운데서 그들의 사회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위축·억제의 반대개념으로 상정된 ‘자기표현·주장’ 이었고, 그 다음은 ‘긍정적수용감’였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뿌리 깊은 한국적 사고 및 행동 방식, 그리고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정서 관련 역량과 관련하여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기질은 개인내적 변인 중 하나로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아동의 정서반응이나 정서표현에 차이를 가져오는데(Klein, 1980; Thomas & Chess, 1977), 그 기질 중 긍정적 정서성은 감정이입과 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지만(Sroufe et al., 1984) 부정적 정

서성은 수줍음이나 두려움을 갖게 하고 감정이입을 방해한다고 한다(Roberts & Strayer, 1996). 위의 발견은 이같은 연구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어떠한 정서유발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소심한 성격을 지닌 아동의 경우는 자신의 정서를 능숙하게 활용하지 못하여 감정 경험을 조절하거나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나 위축·억제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자기표현과 주장을 잘 하는가 하는 것이 사회적 적응을 가장 잘 예측해 준다는 것은 단지 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깊은 요인 규명의 차원을 넘어서, 인내, 자기억제, 겸손, 양보, 예절, 배려 등을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기대되고 또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행동이 기능적인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 사회의 경우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어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한 계속적 탐색이 요구된다.

긍정적수용감 역시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불안정한 환경에 처해있을 때, 아동에게 자신감, 통제,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Luster, 1990)는 결과와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다. 긍정적수용감 역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증진 요인으로서의 적극적 탐구와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정서적유능성이 사회적 적응 중 ‘정서적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가족적용’이나 ‘대인적용’보다 ‘자아적용’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 역시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 및 사회적 적응의 일부 요인들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가정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또한,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능력이 높고,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능력이 높으며 자아적용력과 정서적용력도 높다.

둘째, 정서적유능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력이 높아지고, 특히 사회적 적응 중 ‘자아적용’과 ‘정서적용’이 높아지고, 사회적 적응을 잘 할수록 정서적유능성 중 특히 ‘자기표현·주장’, ‘긍정적수용감’ 등의 능력이 높다.

셋째, 한국적 정서적유능성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여한다. 특히 ‘자기표현·주장’(위축·억제와 반대되는 개념)을 잘 할수록 사회적 적

용력이 높다.

넷째, '자기표현·주장'과 '긍정적수용감'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들이라는 점은 적응을 돕는 교육과 개입 프로그램 개발 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준다.

이상의 논의와 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이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주시해볼 때, 한국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아동 개인 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적 정서적유능성에 대한 초기연구로 정서적유능성과 사회적적응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배려성과 대인적응간에 부적인 상관이 나타난 것은 아동의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정서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한국적인 정서능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추후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및 비교문화적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사회적 적응

## 참 고 문 헌

- 권영민(1995). 대인간 문제해결 훈련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1997).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은, 김리진, 박영애(2004). 한국적 정서적유능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포스터 발표논문.
- 박소혜(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와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남희(1999). 조선시대 아동용 교재들 속에 나타난 정서지능. *아동학회지*, 20(1), 3-14.
- 윤서영, 정옥분(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2), 101-123.
- 이수원(1996). 올바른 부모역할, 올바른 자녀역할: 비교문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대학 생활연구*, 14, 14-23.
- 이수자(1994). 성격의 행동특성, 사회적 적응,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근호(1999). 선진 유학 사상에서 도출되는 심리학의 문제. 최상진 외 편저, *동양심리학*. 서울: 지식산업사.
- 차지연(1999). 가족내 표현된 정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tt Rinehar and Wilson.
-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ew York: Random House.
- Cassidy, J., Parke, R.,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 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ampos, J., Mumme, D., Kermoian, R., & Camps, R. G.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In N.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284-303.
- Chen, X., Hasting, P. D., Rubin, K. H., Chen, H., Cen, G., & Stewart, S. L. (1998). Child-rearing attitudes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Chinese and Canadian toddlers: A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77-686.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for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309-1321.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7-541.
- Davis, P. T. & Cummings, E.M. (1998). Exploring children's emotional insecurity as a mediator of the link between marital relations and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24-139.
- Denham, S. A. (2001). Dealing with feelings: Foundation and consequence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1), 5-10.

- Denham, S. A., McKinley, M., Couchoud, E.A.,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eer status in young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Eisenberg, N., & McNally, S. (1993). Socialization and mothers' and adolescents' empathy related characteristic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 171-191.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3).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In N. Eisenberg & R. A. Fabes (Ed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pp. 57-73). San Francisco: Jossey-Bass.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E.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pp. 103-131).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Garner, P. W., & Estes, K. M. (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al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1), 29-48.
- Kelin, H. A. (1980). Early childhood group care: Predicting adjustment from individual tempera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7*, 125-131.
- Laosa, L. M. (1981). Maternal behavior: sociocultural diversity in modes of interaction, 275-385.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azarus, R. S. (1969). *Patterns of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ew York: McGraw-Hill.
- Luster, T. (1990). Adjustment of children born to teenage mothers: the contribution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2), 393-404.
- Parke, R. D. (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solved problems: A commentary on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0*, 157-169.
- Pelligrini, S. (1985). Social cognition and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6*, 253-264.
-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449-470.
-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 610-625.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rgrated. In R. A. Thompson (Ed.), *Social Development* (pp. 115-18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aarni, C. (1999). *A Skill based model of Emotional compet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April 15-18, 1999).
- Sroufe, L. A., Shorke, E., Motti, E., Lawroski, N., & LaFreniere, P. (1984). The role of affect in social competence. In C.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pp. 289-31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 Mazel.

(2005. 12. 29 접수; 2005. 02. 14 채택)